

리스크관리와 안전관리

1. 「리스크」라는 말

요즘 리스크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리스크가 크다」라든가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등 말이다. 그러면 리스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위험”이라고만 써있는 경우가 많으나 도대체 위험은 무엇이고 또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하다면 일반적으로 위험이라고 부르고 있는 “Danger”나 “Hazard”와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가. 어쨌든 리스크란 말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리스크는 본래 어떤 분야에 사용되고 어떻게 정의되는 용어일까? 보험 등을 포함하는 경제분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므로 경제학 소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었다. 즉 경제학에서는 우선 리스크를 위험과 같은 위치에 두면서 리스크를 다음 2가지로 구분한다. 그 하나는 「통계 등의 수량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예상이 어느 정도 맞는지 알려진 상태에 있는 위험」을 의미하며 또 하나는 「예상 등이 어느 정도 맞는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의 위험」을 의미한다. 그래서 보험의 대상이 되

는 것이 전자(前者)이며 위험비용 등은 후자(後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다만 이것과는 다르게 「위험」(리스크)를 전자만으로 한정하고 후자의 경우는 「불확실성」으로서 구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한편 보험분야에서는 리스크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森宮이라는 학자는 보험 특유의 “퍼릴(Peril)”이라는 말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즉, Peril은 「우연사고와 보험사고」, “해저드(Hazard)”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상태」 그리고 “리스크”는 손해발생의 가능성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본래는 예정된 상태와 실제상태와의 불균형(차이)이다.

이와 같은 해설로부터 알 수 있듯이 리스크는 분명히 경제용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말을 경제적인 위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가 하면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수술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는 경우, 이것은 경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명의 위험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리스크」는 이미 경제용어로부터 일반용어로 전화(轉化)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것

위험관리정보회원제 안내

- 우리 협회 위험관리정보센터에서는 국내·외 위험관리 기술자료와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한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제공을 위하여 D/B로 구축하였습니다.
- 위험관리정보회원제에 가입하시면, 그동안 축적된 화재·폭발·환경·보험 등 각종 재해 관련 정보와 위험관리 관련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의 구분

구분	특별회원	단체회원	개인회원	간행물회원
연회비	50만원	15만원	6만원	4만원
서비스	간행물 제공, 자료 복사 제공, 자료 목록 제공, 방재기술사문			

※ 회비 일시 납부의 경우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2년분 일시 납부 : 10% 할인, 3년분 일시 납부 : 20% 할인)

소장 자료

단행본	정기간행물	규격·코드	시청각 자료 등
10,914권	173종	34종	필름, 테이프 143종 등

가입 문의

협회 위험관리정보센터 정보서비스팀

회원제 담당자 : 고 명 선 ☎ (02) 780-8111 (교 355)

회비 납부 온라인 계좌번호 (예금주 : 한국화재보험협회)

은행명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농협중앙회	083-01-254221	외환은행	061 13 40679 6
		조흥은행	361 01 086139
우체국	012591-0140868	국민은행	099-01 0265 494

인터넷과 PC통신으로 제공되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fpa.or.kr>

◆ PC 통신 : 천리안에 접속한 후 "GO RMI"

◆ 문의처 : 위험관리정보센터 정보서비스팀 ☎ (02)780-8111 (교 353)

을 「위험발생의 가능성」이라든가 「잠재위험성」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제부터 리스크를 일반용어로 보지 않고 위험발생의 「가능성」으로 이해하고 Hazard나 Danger는 「위험상태」로서 구별하기로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이 안전(安全)의 경우에 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2. 위험성과 리스크의 관계

안전분야에서는 위험성의 척도로서 리스크를 위험의 발생빈도와 손해정도의 곱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안전분야의 입장에서 볼 때 리스크를 위험성의 의미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태로서의 위험의 발생과 손해의 발생이라는 2개의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앞서 수술에 대한 리스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손해 발생의 가능성은 당연한 것으로 친다 하더라도 만약 인간의 사망이나 장애 발생을 손실로 볼 수 있다면 리스크는 위험성과 동의어가 된다. 그러면 「지진에 의한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기서 지진발생 가능성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리스크에는 안전분야에서 말하는 위험성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원래 손해발생은 위험이 발생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역(逆)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와 위험성은 일치한다고 제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지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을 걸어야 한다고 한다. 이 때의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험에 의해서 확실히 손해의 가능성은 줄이지만, 보험에서는 상태로서의 위험성은 감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

다. 이 경우 리스크는 일반용어로서가 아닌 손해를 지향하는 경제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리스크라는 말을 안전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리스크와 안전관리의 차이점

말할 나위도 없이 구체적인 리스크 대상에는 질병, 화재, 도난, 교통장애 등 많은 사고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경제적인 면을 포함해서 이 리스크, 즉 위험발생과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한 대응이 소위 「리스크메니지먼트」 또는 「리스크관리」라고 부르는 인간의 행위일 것이다. 한편 안전관리는 가능성이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상태로서의 위험(Hazard)과 이에 따른 손해(Damage)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관리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양자의 논리적인 차이는 문제를 가능성으로서 이해하느냐 상태로써 파악하느냐 하는 것으로서 관리상 목적의 상이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안전을 위해서는 그곳에 존재하는 위험한 상태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서는 위험상태의 제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적으로서 요구된다 할 것이다. 여기에 반해서 리스크관리의 경우에는 경제를 포함한 총체적 위험과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상태로서의 위험자체의 제거는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필요 불가결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규명하면 Hazard의 존재를 허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그 질이나 양에도 불구하고 Hazard를 제거하는

때문에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위험한 상태를 허용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따라서 안전관리와 리스크관리는 논리적으로도 또 목적으로 보아도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어느 쪽이 진정한 안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는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4. 리스크관리가 강조되는 배경

위와 같이 리스크관리와 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안전분야에도 리스크관리 혹은 리스크메니지먼트라는 말이 인기가 높아가고 안전관리라는 말은 시들어가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새로운 말에 현혹되는 나쁜 습관은 차치(且置)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것은 요즘과 같이 경제우선의 사회풍조가 사회전체에 확산되면서 안전문제에도 영향을 미쳐 사고(事故) 그 자체보다도 사고에 따른 손해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사고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는 사고가 발생할 때에 손실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오히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사회에 만연(蔓延)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안전관리로는 충분치 않고 경제를 포함하고 있는 리스크관리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다. 이와 같은 주장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리스크관리가 안전관리를 대체할 수 없고 리스크관리가 강조되는 만큼 손해라고 하는 경제적인 면이 중요시 되어 위험한 상태 그 자체가 소홀히 되어 대응을 소홀히 하지 않음


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보험으로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했으니 이제는 안심이다”라고 한다면 본말전도(本末顛倒)가 아닐까? 이러한 일종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피하기 위해서도 리스크관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를 중요시하는 리스크관리의 위치는 위험을 방지하는 노력을 막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찬성하기 어렵다. 강조되어야 할 일은 역시 위험(Hazard)과 피해(Damage) 양자를 지향하는 본래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경제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안전문제도 경제적인 리스크로 생각하지 안 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에 따라 안전의식이 저하되어서는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 安全工學(Vol. 38 No. 5, 1999)

— 발취: 정보센터 부장 홍세권

나왔습니다!!

화재안전점검매뉴얼

정식가는 별지기름
 한국화재보험협회
 KORE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자세한 내용은 21쪽에...